

대전100826b마태복음7강

2010-12-02 12:02:49 녹취 : 송재원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라 은밀한 중에 보신다. 7절. 이방이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8절. 너희는 저희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합니까? "너가 태어나서 하고 싶은 기도 있잖아?" 예. 있습니다." "그거 아니거든." 이게 남의 이야기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예요. 인간이 저 본받지 마라고 했던 그 사람이나 우리나라 태어날 때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를 열심히 어떻게 했던지 간에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했던 것을 그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보통 이 대목에 기도 대목을 설교할라치면 목사가 교인의 기를 짝 죽이고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목숨바쳐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전부다 유구무언이죠. 교인들은. "적어도 기도라는 것이 뭔지 알려면 목숨 내놓고 광야에서 철야하며 기도해본 적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 대목은 여러분한테 너무 격조가 높은 겁니다."

이 말을 운으로 떼는 이유가 뭘까요? 이 목사는 너희들하고 격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걸 줄이면 까불지마라예요. 그런 느낌을 못느끼나요? 케이블 TV에 목사들 설교할 때 "까불지마라 어디 아마추어가 프로한테." 이런 느낌 못받았습니까? 저만 그것을 느끼나 본데. 아까 한 것처럼 한 남자가 죽었는데. 한 남자가 죽었다는 것을 도외시해 버리면 까불지마라. 아마추어, 프로 이 사이에 계급이 발생돼버려요. 여기는 한 남자가 죽었는데..잠깐 설명할게요. 한 남자가 죽었다는 것은 새언약. 그러면 그전에 새언약이 오기전에 모든 인간은 구약언약, 율법속에 저주아래 있죠.

저주아래 있는 인간들끼리 격조가 높네, 낮네 저기들끼리 까불지마라가 성립이 될까요? 안될까요? 안 돼요. 자기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잦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쑥 뭘 집어넣습니까? 한 남자를 죽였다 이 말이죠. 다른 노선에 와 버린 거예요.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 이쪽에서는 영생되지 못할 짓들을 한거예요. 영생과 관계없고, 유사영생. 영생처럼 보이는 유사천국, 유사복음. 비슷하게 보이는 성스러움. 지금도 이 동네는 아주 요란스러워요.

누가 더 높은 경지에 이르렀는가? 아주 대단합니다. 최고 1등급 한우고기처럼. 여기도 1등급 성도, 2등급 성도. 쪽 있어요. 그 유명한 존밀턴의 천로역정이 얼마나 큰 기여를 했습니까? 나는 천로역정하고 불교의 회심곡하고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전부다 옛언약속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행함이에요. 한 남자가 죽었다는 것은 성령의 믿음으로 받아야..집안에 한 남자가 죽었다고 새겨 놓으세요. 새언약을. 옛언약속에도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안에 텅텅 비어 있지만 그 안에 율법이 있고 율법의 피가 있고 또 피로서 율법을 카바하는 거예요. 카바, 덮는 것. 가리워지는 것.

가리워지는 그것이 그들에게 모든 죄를, 7월10일 대속죄일. 요충.회충.십이지장충 단 한 방에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모든 죄를 용서하는데, 그 근거는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단지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 지성소에 있는 그 피와 죄가 이것이 사람으로 구체화 될 때 한 남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키가 몇 센티냐? 인물이 뭐냐? 성형수 술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기능을 하느냐? 지성소의 기능을 하시면 그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대제사장도 되시고, 제물도 되시고, 성전도 되시고. 제사 자체가 인격화. 제사 자체가 움직이는 제사. 그 분이 토하는 말씀하는 모든 것이 피에서 쏟아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산상설교도 해석을 할려면 어디까지 들어가야 하느냐면 지성소되시는 피까지 들어가서 피에서 다시 밖으로 튀어 나오면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 해석입니다. 그런 해석을 지금까지 저는 본적이 없어요. 뭐 유대교가 어떻니, 성경은 모든 해석은 피로 접근해서 피를 듬뿍 담고 데려가는 겁니다.

육신에서 육신의 열매를 가지고 그 다음 어디에 가야 합니까? 십자가에. 육신의 열매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정과 욕심에서 나왔거든요. 육신의 열매라는 것은 다 드림(dream), 꿈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 꿈을 정과 욕심과 십자가에 다 못박아 버리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은 내 꿈이 아니고 누구 꿈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이 나오죠. 그 약속은 미흡함이 없죠. 그래서 그 약속속에 있는 사람은 온유하고 화평하고 자비롭고 이렇다 말입니다. 비록 시간은 짧지만. 몇 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를 오래했다고 하지만 오래 기도한 것도 저주아래 있고. 짧게 기도한 것도 저주아래 있고. 옛언약 아래서 어떤 기도도 다 저주아래 있는 겁니다. 6장8절 봅시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저희라는 말은 저쪽사람들, 강 건너 경계밖에 있는 저쪽사람들이겠죠. 여기서 잠시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불교의 특징은 경계가 없다는 것. 경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너와 나를 인정하지 않고 경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경계를 인정해 버리면 대상이 되어 버리니까 경계의 대상이 있어 버리면 자기 피해가 되니까.

모든 것은 하나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비올 때 냇가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는 구분되지 흘러간 그 모든 쓰레기가 굽이치는 그 흙탕물 속에 영겨서 가죠. 냉장고, 스티로폼이든지. 밖에 스티로폼은 물살이 약할 때는 가에 붙어서 겨우 따라가잖아요. 큰 물나면 몽땅 쓸어서 나가죠. 것처럼 불교에서는 인간의 모든 것을 같이 쓸어서 나가기 때문에 너나가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유식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박 뭐라고 합니까? 저희라고 하죠. 누가 저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너희에서만 저희가 발생되잖아요. 저희가 있다는 말은 너희에 해당되는 사람을 따로 꼬불쳐 놓았다. 따로 장만해 놓았다 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한번 봅시다. 제가 시간이 없어도 이 구절을 찾아보는 이유는 중요하고 함축이 되는 귀절이에요. 내용들이 압축이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해석이 난해하니 해석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거기까지 보면 지금 몸이 몹시 아프다든지, 가정이 어려워 생활비가 떨어질 때 "하나님이여 못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생활비가 똑 떨어졌습니다. 옛날 엘리야 때기도하면 참 기름 빈병마다 채워지고 어떻게 풍성한 혜택 받을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하면 방금 읽었던 구절을 우리에게 이야기 한다면 우리 모습 여기인데 우리는 우리 자취를 감추고 내 주변에 있는 것을 기도해요. 지금 내 몸이 생존인데, 생존을 자꾸 생명이라고 보죠. 아까 했죠? 아담과 하와가 아기를 낳고 얻었다 했잖아요? 얻은 것이 가인이죠.

그런데 얻은 것이 사실은, 너가 잃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진짜 얻을 것은 가인을 얻지 말고 아벨의 피를 얻어야 해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미리 가짜배기 생명, 가인을 준 겁니다. 이 가짜라 했지만 누가 해당돼요? 이근호도 해당되고 여러분도 다 해당돼요. 진짜는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가 될 경우에만 너희 아버지가 된다. 저희들은 뭐가 없다? 내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가. 저희들은 뭘 찾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죠.

이 하나님 어디서 나온 하나님이나면 예수님이 와서 너희와 저희를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의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오게되면 일방적으로 저희와 너희를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찾는 하나님이 뭐냐하면 예수님 와서 너희와 저희를 구분하는 것이 아닌, 내가 여기 있음 자체를, 나는 나로 보고. 우리로 보고. 우리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아닙니까?

아, 예수 안 믿고 교회 믿잖아요. 교회가 목사 생존이 되니까. 생존마당이고. 그리고 교인은 교회를 통해서 천국간다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령받고 보니까 천국과 통하는 것은 한 남자가 죽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좋은줄 모르겠어요. 왜? 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응용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니까. 다시 묻습니다. 천국과 지상이 통하는 것은 뭐 밖에 없습니까? 한 남자가 죽어서 흘린 피밖에 없습니다. 피는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주님의 행함인데 주님의 행함을 믿음이라고 했죠.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 언약에서 나온다고 했죠. 언약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산상설교의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다 나와요. 어쨌든간에 하나님의 뜻은 저희를 구분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뭘니까? "저희에 들어가게 마시고 너희에 들어가게 하세요." 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것이 정과 욕심이라. 우리가 너희라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너희, 지금 앉아 있는 "어이, 너희." 하시면 너희가 되고. 그러면 그걸 받고 "나보고 너희래" 하고 까부는 사람 없어요.

"누구십니까? 저를 너희라고 하신 분이?" 라고 방향이, "내가 이야기 할게 너는 일방적으로 저희가 아니고 너희야" 하면 "누구십니까? 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 피흘리신 예수님이 비로서 와야 너희는 니가 아는, 저희와 너희의 구분이 다 깨어져 버리고 내가 정해주는 너희와 저희가 새롭게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 기도의 내용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주기도문은 교회 좀 다니면 다 외워요. 유치원 애들도 외워요. 외우면 뭐해요? 해석을 못하는데.

그리고 미리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주기도문 응답을 누가 하신줄 알아요? 우리가 못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이 기도 내용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응답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차후적으로 "아하, 예수님이 주기도문 응답해서 우리에게 이런 사건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구나! 아 내 신상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다 주기도문대로 딱 맞아 떨어진 것이구나!" 이것을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체험화 시키는 겁니다. 그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쉽게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던지는 것은 우리보고 받아 적어서 숙제하라는 말이 아니고 "아, 이대로 벌이시는구나 !"이것이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에게 무슨 구원증이 필요해요? 남아일언중천금 해가지고 자기 집 하나 잘 지킨다 하는데, 세상에 이것은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지만. 인간은요,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은 남아일언중천금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도무지 니가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니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그것이 우리한테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도무지 우리가 말을 해놓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다 몰라요. 아까 장로님하고 오면서 이야기 했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저기 보니까 별판이 있는거예요. 별판에서 벌레들이 싸우는 소리가 차타고 가고 있는 우리 귀에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안 들린다면, 그러면 별판에서 싸우고 있는 벌레들이 소리를 안 내고 있습니까? 소리를 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헤르쯔를 낮게 해가지고 쓸데없는, 인간 육신과 상관없는 소리는 안 들리게 하고 더 큰 소리, 지금도 벌이 충돌하는 소리는 안 들리잖아요.

성경은 뭐가 되야 돼요? "침묵의 소리" 보이지 않는 소리가 세계로 시간따라 계속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들리는 소리는 없으나 그들은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많고 큰 거예요. 우리는 주기도문 기도대로 매일같이 은혜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지키심과 보호받고 있고 복음을 위해서지만. 복음을 위해서 쫓지만 우리는 그것을 골라잡고 있습니다. 내 욕망과 육신의 정욕에 부합된 것만 응답을 하고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빠지는 거예요. 빠지기 일쑤다 이 말이죠.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감사할 것만 골라 담아요. 마치 뷔페식당 온 것처럼. 서점에서 책 고를 때 다 사는 것이 아니고 읽고 싶은 책만 사는 것처럼. 이렇게 못된 인간들이 뭘 복을 달라고 입을 놀립니까? 차라리 침묵의 소리가 더 큰데. 그 침묵의 소리는 노아언약 따라서 움직입니다. 노아언약에서 우리가 원한다고 가을에서 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가을에서 겨울로...이 모든 것이 약속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보고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보고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보고 약속했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이루었고 그 약속 덕분에 우리는 믿음이 찾아왔고 주님이 찾아왔고 성령때문에 찾아보니까 이미 우리는 창세전에 예정된 채로 이 땅에서 그 보이지 않는 진리, 숨어있는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라고 이 땅에서 각자각자 서로 다양한 삶을 살도록 인생을 그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와서 주께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롬11:36).

어떤 사람은 목사 안 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의 계명, 이런 계명은 일방적으로 내가 조립한, 아무것도 모르면서 기껏 들었던 풍월 가지고 대충 짜맞추기 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졸였다면 얼마나 일방적인 걱정, 근심이예요. 정말 우리가 걱정, 근심 제대로 안 할수가 있다면 죽기 전에 0.5초전, 눈 감기전에 늘어지고 그 순간 때 왜 우리가 기쁘냐면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 놓아요. 나는 좋아서 내려 놓는데 시끄럽게 울기 시작하네. "아버지,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여보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난리라. 본인은 편히 쉬러 가는데. 약속대로.

여러분 육신 없으면 온유와 화평 자비가 저절로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모든 육신의 열매라고요. 열매 어디서 나와요? 육신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나온다고요. 육신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나옵니다. 육신의 열매니까 육신이 있어야 그것이 생존이고 그 생존을 자꾸 생명으로 해석하고 생명이 오게되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낍니다. 어떤 학자에 의해서 모든 인간의 행동은 배후에 공포가 있는데 그 공포는 뭐냐? 죽음이 언제 들이닥치냐 하는 겁내는 그 공포가 그 사람을 심리와 모든 정신상태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무서워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에 가면 잠시 기분이 좋은 이유는 넓은 산에 가니까 잠시 잊어버리고 내가 산다는 이유가 의미가 있거든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내가 죽고 사는게 갑자기 왜소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산에 내려오면 그 다음부터는 회비 얼마고 하면 또 뭐합니까?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을 버리는 순간, 이 제대 날짜요 이거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날짜 정말 이거 복입니다. 그런 장례식에 가야 너의 본질이 보인다는 말이 그래서 전도서에서 나온 겁니다.

자, 방금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0.5초의 순간입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무슨 기도 할까요? 1초도 안되서 죽는데 무슨 기도할까요? 자식? 자식 맡겨야죠. 하나님한테. 왜냐하면 내 육신 떠나면 내 육신의 자식이니까 이미 남아 있는 자에게 단독했지만 하나님한테 단독으로 맡겨야죠. "하나님이여 내가 가는 천국에 이 자식들도 육신이 떠나기 전에 오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면류관 받은 것도 그냥 하나님이 쓰셔야 합니다" 하죠.

그 기도를 지금 0.5초라고 생각하지만 말고 한 50년 지나서 그 0.5초를 길게 한번 늘어뜨려 보자는 말이죠. 그럴 때 자식에게 "아이구 이놈 자식 공부는 왜 그렇게 못하냐?" 그게 아니라 "공부보다도 너의 생명이, 생존보다도 우선이다." 라고 해야죠. 물론 그 애가 오해해서 농땡이 부리죠. "우리 엄마는 공부하라는 소리 안해. 난 이제부터 생존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라고 난오겠지만.

주기도문에서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기도의 응답으로부터 소급해서 주기도문을 해석해 줘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응답은 어디서 이루어졌죠? 십자가에서. 왜? 다 이루어졌다고 했으니까. 모든 것이 십자가의 새언약에서. 주기도문 하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게 함이라. 이루기 위해서는 주기도문은 여기서 완성이 되면 안 되고 미완료로 남아 있어야 되죠.

이쪽 십자가에서 다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주기도문 자체가 완성되면 안 돼요. 기존내에서는. 이런저런 점에서는 완성되어야 됩니다 라는 문제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보세요. 외워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럼 그것 안 지키면 지옥갑니까?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하나의 문제지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다 이루신 문제지를 우리에게 보이느냐 하는데, 산상설교 자체가 율법적 기능이에요. 레위기다 이 말입니다. 레위기가 뭐예요? 하라, 하지마라 줘야요. 왜 자꾸 우리보고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줄 뻔히 알면서도 하라, 하지마라를 왜 하셨을까요? 그게 뭐냐하면 예수님이 하는 것과 너희들이 하는 것에 격차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도 그 이유고. 금식하는 것도 그 이유고. 기도하는 것도 그 이유고. 마태복음 6장에서 세가지 모든 종교적인 기능을 설명하는 것은, 한번 너희들이 하는 것을 밀천 다 내놓아봐라 하는 그겁니다. "그래, 그거지. 그게 다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게 바로 영터리거든."

주기도문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따라서 산다. 여기서 대부분의 신학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연결 안 될 때는 주기도문으로 못 살았는데 십자가 믿고 난 뒤에는 주기도문으로 살았다 이렇게 나와요. 거의 백프로입니다. 모든 주기도문 해석책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받은 사람이 맞죠?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내가 여러번 굶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죠? 사도 바울은 성령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성령받은 사람에게는 누가 찾아오죠? 성령이 찾아오죠. 성령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가 내용물로 담겨서 찾아오죠. 그래야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다 이루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게 되면 그 다음에 뭘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성령으로 준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떤 경우라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굶고'가 없어야 돼요.

머리를 한번 써봅시다. 사도 바울이 세끼 먹는 사람이 아니고 하루에 한끼만 먹는 사람이라면, 세끼먹는 사람한테는 아침, 점심을 굶고 저녁 한끼만 먹으면 되지만, 사도 바울처럼 한끼만 먹는 사람한테는 뭐가 돼요? 굶는다는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하죠. "주여 오늘도 내가 원하는대로 한끼만 주시는데 오늘도 안 굶었습니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굶었다는 말은 자기가 분명히 이 끼니가 되어야 할 때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굶었다. 세끼, 두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굶었다는 말은 예상 양식이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받은 사람인데 내가 보기에는 내는 자식 같아요. 하나님의 혜택을 왜 못받냐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일주일째 양식을 달라고 했습니까? 열흘

째를 달라 했습니까? 그냥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했는데 일용할 양식도 허락이 안 되었죠.

주기도문대로 산다는 것은, 그 뉘앙스가 여러분들이 가난한 것은 남한테 용서를 안 하기 때문에 양식을 안 준겁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죄진 자를 사하여 줘버리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해당이 되는데 일용할 양식을 안준거 보니까 아직도 숙제가 남아 있어. 니가 해야 할 숙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 안한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안 준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굶을 때마다 뭐 생각해야 합니까? 굶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죄인된다. 죄 인되면 지옥간다. 이것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죄를 안 지어야 된다. 죄를 안 지어야 된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했을 때. 그게 진짜 천국간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식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도 종류가 달라요. 153키로 짜리와 45키로 짜리와 달라요. 소비되는 칼로리가 다르니까. 이 해석이 과연 합당한 해석일까요?

이런 해석이 말이 안되는게 용서라는게 일종의 함정이예요. 왜냐하면 그당시 유대인들이 용서를 했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봐주는 겁니다. "성질나고 화나지만 용서해 줄께." 하는 것은 어느 수준 까지만 가능하냐면 내가 용서될 만한 수준까지의, 그 사람이 나한테 해꼬지할 때만 용서라는 것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진짜 용서는 내 능력을 넘어섰을 때. 이걸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경우에만 용서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꼬지를 했을 때 "내가 당신 봐줄께." 라고 하면 이 해꼬지는 온전한 해꼬지가 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해롭다 하지만 내가 봐줄수 있는 역량과 해소가 될 만한 해꼬지라면 아직 해꼬지 근처에도 안 갔어요. 논리상. 포도가 여기 있어요. 강의 하는데 이 포도를 집사님이 던져 버려요. "에이 목사님 약오르재?" "그 정도는 이겨냅니다." 그 정도 이겨낼 것 같으면 나한테 해꼬지 한 것이 아니라니깐요.

모든 드라마 나오는 것 보면 복수를 왜 합니까? 복수할 때 처음부터 용서한 사람 없어요. 용서하고 용서하고 용서했는데 감히 용서가 저 사람의 질을 더럽게 들여놨네. 이럴땐 어떻게 합니까? 복수가 나오잖아요. 인간에게는 복수만 나오지 용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해꼬지는 나를 기분 덜 나쁘게 한 거예요. 자식을 용서합니까? 자식을 사랑합니까? 자식은 아무리 부모에게 해꼬지해도 부모는 자식을 용서할 맘이 없어요. 해꼬지해도 그냥 자식이 예뻐요. 그냥 사랑해 주고 싶어요. 부모자식 간에는 용서 성립이 안 됩니다.

용서가 언제하냐면 원수가 될 때 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신을 찾을 때 신 앞에 자기가 원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죠. 세상에 그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세요. 너희가 원수 될 때에 용서해 줄께 이런 소리 했다는게 아니라 원수 될 때에 피를 흘려서 원수된 자, 경건치 않은 자에게 피를 줌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흘림으로서, 그 피가 묻은 사람을 용서라고 제대로 규정하면서, 그 피 자체를 주기도문의 완성. 용서는 피묻은 것을 주기도문의 완성이로 땀겨서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복수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맨날 복수만 해요. 여러분들이 다 알지만 너무 중요한 이야기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될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뭘니까?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대상이 아니고 "이거 죽여버릴까?" 복수의 대상입니다.

그 복수의 대상이라는 감각이 있어야, 우리는 오직 용서를 받아서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해주세요"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뭇 때문에 구원받는다? "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죽였다? 한 남자를 죽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독교는 이단입니다. 모든 기독교는 이단입니다. 용서 가지고 교회 부흥시킬려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담배피고 술마시고 개차반이 인간 한번 되어 볼려고 하다가 목사님이 용서하라고 하니깐 "야, 그거 멋진거다!" 얼마나 멋져요? 용서 못할 자를 용서를 하게되면 나의 가치는 업(up)돼요.

이거는 술먹고 림살롱에서 까불락 거렸는데 천사 되었어요. 그 천사를 내가 왜 마다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하면 업(up)되는데. "집사님 간증하세요." 하면 간증하고. 구원은 한 남자를 죽인 피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새언약이에요. 우리는 뭐냐면은 용서했다고 까불대는 그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수를 이해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전혀 이해 못한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를 이해 못한 거예요.

평생동안 교회다니 이것이 우리 업적이 되었어요. 착하다. 착해. 그렇게 비가와도 한번도 교회 안 빠졌으니까 얼마나 착한 겁니까? 착함을 끌어 모으는데 바빴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다시 이야기 할게요. 사람이 용서란 말이 해당이 안 되는 이유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짓이라든가 해꼬지는 아직 내 품성을, 내 성질을 덜 끓게 만든 거예요. 용서될 수 없는 상태에서 인간은, 그냥 용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복수입니다.

복수할 때 간접적 복수가 있고 직접적 복수가 있습니다. 직접 복수라는 것은 지가 나서서 복수하는 것이고 간접 복수는 하나님이 그 사람 때려 죽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웃죠.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감정이 많은데?" "개가 내 용서를 안 받아 줬잖아요." "니가 그 사람을 몇 번 용서했는데?" "주님 말씀대로 490번 용서했습니다." "491번, 한번 더하지 왜?" "아, 그거 도저히 안되대요." 보통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490번 못갑니다. 보통 사람들이 세 번 갑니다. 세 번 가면 진짜 많이 가신 거예요.

또 단시간에 세 번 가면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고 난 뒤에 15년 지나고, 용서하고 난 뒤에 10년 지나고, 또 30년 지나면 세 번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 사흘만에 세 번 짜리 용서는 안됩니다. 자식이 성적이 나빴다. 그런데 한 5년 뒤에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하면 용서가 되는데. "엄마, 나 성적이 나쁘거든요. 그런데 오늘 애를 팼거든요. 또 돈 잊어버렸거든요." 한꺼번에 나오면 용서가 안 돼요. 490번 용서가 됩니까?

인간의 자아에 뭐가 있다? 복수하고 싶은 힘이 들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용서를, 인

간의 용서가 아닌 인간에게 예수님 자신의 용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되겠어요? 인간의 저항과 복수심을 극도로 업(up)되는, 인간을 진짜 화나게 만드시는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그게 뭐냐 인간의 모든 판단.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식으로 인간을 찾아 옵니다.

"니가 의로워?" "그렇습니다." 라고 약을 살살 올려야 돼요. 약을 올려야 진짜 당신같은 예수 말고 다른 예수. 십자가 말고. "니가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할 수 있어. 니가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라고 말을 한 거야." 라는 그쪽의 예수. 우리의 의, 행함.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오지 않아도 우리의 양심가지고 거뜬히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성화할 수 있는 그런 예수를 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너무나 착하기 때문에. 내 착함이 계속 유지될 때만 우리는 교회에 가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싶어요.

비록 하나님이 내 환경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죽으면 죽으리라는 더욱 신앙심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비록 어려움을 줬지만 나는 그 어려움에 굴하지 않는 괜찮은 신앙입니다." 라고 그것을 부추길 때 그런 하나님이 지옥 보낸다고 외칠 때 그런 하나님을 죽이고 싶어요. 하나님은 한 남자를 죽인 거예요. 한 남자를 죽였다는 것은 우리를 새삼스럽게 측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뻔히 아셔서 우리보다 먼저 2000년 전에 그 일을 했어요.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왜 십자가일까? 이렇게 착한데. 왜? 아주 과격함 방법으로 피를 흘리고, 이것이 피라는 것을 사지가 찢어져 죽어가는 어린 양처럼. 주님께서 이거 오바하고 있는거 아닌가? 난 착하니까.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있어서 해석이 바로 기본은 응답부터 풀어야 합니다. 한번 주기도문 봅시다. 마태복음 6장. 기도자체를 의미를 두는 것이 이방인입니다. 타고난 인간성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 무슨 아버지 나오니까? 우리 아버지 나오죠. 우리 아버지가 뵈려면 여기에 핵이 있어야 돼요. 우리라고 모을 수 있는 핵이 있어야 해요. 사르트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연한 집단과 집합이 다르다고. 우연히 모인것은 하나의 집단입니다. 버스 기다릴 때 서로 관계없지만 버스 한대 오는 시간 때문에 우연히 모였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낚시하러 가자 라고 했을 때는 낚시가고 싶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모이면 그것은 집합이 되는 거예요. 낚시하러 아침 9시까지 모이라고 하면 목적이 있어서 모이거든요. 그러다 오늘 날씨 때문에 낚시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겠죠. 이거 한번 보세요. 흩어지고 싶어도 안 흩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겨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빼도박도 못해요. 그래서 실수해서 애 하나 더 낳았다고 하잖아요. 안 생길 것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아버지라는 용어를 쓴 것이 이것 때문에 쓴 거예요. 이거는 너가 내 자식되고 싶어서 자식 되는 사람은, 아예 이 천국의 자식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자식은 아버지가 만든 것이지, 자식이 아버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너가 엄마를 만든 것이 아니고 엄마가 너를 만들었어요. 그래

서 "엄마는 나 신경 안써도 되는데.." "그거는 너 생각하고." 엄마는 너한테 의무를 물어 본 것이 아니야. "어떻게 우리 아드님 피아노를 치실랍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야. 부모자식 간의 운명적인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떼놓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바로 예수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자식들을 낳은 것입니다. 너희들 육신의 자식들 연결고리와 숨어있는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와 어느 쪽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핵심, 구심점. 진주조개를 키우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종패(종자)가 되는 조개.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죠. 우리는 양자입니다. 양자란 말은 진짜 아들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양자란 말은 아버지가 없었는데 아버지가 생겨버렸다. 아까 요한복음 20장 10절에서 했죠? "내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 말은 뭐냐하면 예수님이 등장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아버지였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것은 기존의 종패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상태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미리 조작된 것, 전부 다 조작된 것입니다. 거짓말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가? 죽으신 그 분이 하나님 이에요. 하나님 없어요. 그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요. 그 분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을 때 그분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 아버지가 그분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기존의 하나님은 널려 있어요. 기독교도 하나님이고 불교도 하나님이고 이슬람교도 하나님이고 천주교도 하나님이고...유치원 애들보고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님하고 기도해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전부 다...못박혀 죽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의아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깐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요한복음에 그것도 한글로 너무나 알기 쉽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화를 돌우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껏 섬겼는데 그것을 마귀라고 하니깐 울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복수하고 싶어요. 무조건 나를 부정했다는 자세, 내 존재 자체가 기분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맨날 너는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라고 하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관심을,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한단 말입니까? "아버지여 제가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 손상이 안 될려면 뭐 밖에 없습니까? 감사 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하면 되죠.

앞으로 우리 두 아드님(재원, 재아)이 연주할 때 감상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사세요. 뽁뽁 소리 나도 감사하면서.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감사하면서.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신직수 전도사 10월에 결혼한다고 감사가 넘쳐...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자기가 조건이 맞아서 감사한다고 하지만 한번 감사한 사람은 어떤 조건이 와도 감사할 수 있어요.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항상 감사하게 되었어요.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제가 옛날에 이야기 할 때 수세식 화장실 말고 구식 화장실 있잖아요? 변기 누르는 것 말고 줄을 잡아 당기는 것. 위에 물탱크 있고 변기 있고 앞에 줄을 잡아 당기면 물이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설이 안 좋은데 가면 물탱크가 넘쳐서 잘못 잡아 땡기면 옷이 다 젖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간단합니다. 십자가만 잡아 당기면 뭐가 내려온다? 준비된 천국의, 그 나라가 이 지상에 내려오죠.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지기까지는 뭐냐? 그 내려오는 과정이죠. 그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룬 것 같이.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물 새로 퍼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충분한 물은 물탱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한마디 말만 하면 거기서 뭐가 쏟아져 나온다? 예수님의 천국의 완성된 것이 다 나오죠. 이 개같은 여자가 자기는 떡부스러기 하나 얻어 먹으면..너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삭개오는 자기 집에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백부장은 종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말씀만 하소서 라고 짧은 말을 했는데 주기는 뭘 줬습니까? 준비된 천국을 몽땅 다 주는 거예요. 중풍병자 친구들이 와서 하니깐 걸어서 가라. 그러나 걸어서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준비된 죄사함이, 저주받아야 되고 진노 대상인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몽땅 다 쏟아지는 거예요. 난 그저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쪽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 출애굽 당시, 옛 이스라엘 광야 때 하나님께서 원형, 장차 예수님께서 왔을 때 아무 농사도 짓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쏟아지는 그 원형을 니 힘으로 어렵게 노동할 수 없는 그 상태로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 외에는, 자기 노동으로 먹고 살 것이 많은데 열 두 제자들은 예수님 아니면 아무 희망이 없는 겁니다. 마치 현대판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주께서 당부하는 것은 뭘입니까? 우리 통하는 법칙은 용서밖에 없다. 용서해라. 용서가 됩니까? 화가 나는데. 하지만 결국은 종패되는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용서를 알 때, 저절로 남자답게 "오우 너 용서하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용서가 흐르고 넘친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흐르고 넘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다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현실화 되고 구체화 되는 그런 남은, 기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